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초범/재범여부와 주거/숙식 지원여부를 중심으로

정 하 영

김 시 형

권 욱 현

이 동 훈[†]

성균관대학교 / 학생

성균관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재범여부에 따른 출소자의 심리적 증상 차이를 확인하고, 초범집단과 재범집단 내 주거지원 및 숙식지원에 따른 심리적 증상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 및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8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SPSS21.0, Mplus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 중 다중지표 다중원인(MIMIC)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범여부에 따른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연구변인들(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첫째, 아동기 학대외상은 초범집단에 비해 재범집단이 더 높았고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는 초범집단에 비해 재범집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범집단과 재범집단 내 주거지원집단과 숙식지원집단간의 심리적 변인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초범-숙식지원집단은 초범-주거지원집단보다 아동기 학대외상이 더 높고 자아탄력성, 적극적,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범-숙식지원집단은 재범-주거지원집단보다 아동기 학대외상이 더 높고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재범, 출소자,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주거지원, 숙식지원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 02-740-1984, E-mail : dhlawrence05@gmail.com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는 출소자의 재범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 개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을 비롯한 여러 정부관련 기관에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소자의 재범은 대한민국 전체 범죄에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2017)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범죄의 전과자 비율은 최저치가 2007년 44.1%, 최고치가 2015년 51.4%로 전체 범죄의 절반가량을 출소자의 재범이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적 수치가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범률은 매년 대략 22% 선을 유지하고 있다(법무연감, 2016).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함에 있어서 여전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출소자들이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출소자 재범의 원인을 탐색하는데 앞서,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특성 및 심리변인을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초범과 재범 간의 집단 차이로부터 재범 위험요인과 재범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재범집단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범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처를 마련하는 것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출소자의 재범에는 성격, 가족,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외상은 재범의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Kerig & Becker, 2015; Teague, Mazerolle, Legosz & Sanderson,

2008; Topitzes, Mersky & Reynolds, 2011).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아동기 외상경험이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확인되었고(Bowen, Jarrett, Stahl, Forrester & Valmaggia, 2018; Malvaso, Delfabbro & Day, 2018; Moore & Tatam, 2016), 특히 Kim, Park & Kim (2016)은 아동기 학대경험 중 신체적 방임을 경험한 대상자가 반복적인 범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수형자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수형자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보이고, 비행과 재범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Baglivio et al., 2016; Sergentanis et al., 2014).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 및 부정적 사건들은 세상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는 범죄행동과 연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Maschi, MacMillan, Morgen, Gibson & Stimmel, 2010).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악순환의 연결고리이며 삶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출소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외부로 인한 스트레스나, 개인내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Klohn, 1996), 출소자 재범의 보호요인으로써 보고되어 왔다(윤기원, 이동훈, 2017). 실제로 Benda(2001)의 연구에서 재범집단은 초범집단 비해 낮은 탄력성과 자아효능감을 보였다. 하지만 자아탄력성과 재범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하며(Fougere, Daffern & Thomas, 2015), 자아탄력성은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ougere, Daffern & Thomas,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탄력성은 출소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범죄에 다시 연루될 가능성을 낮춰주는 보호요인으로

출소자 재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강수운, 이동훈, 2019; Markson, Lösel, Souza & Lanskey, 2015; Viljoen, Nicholls, Greaves, de Ruiter & Brink, 2011). 국내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출소자 교정 및 재사회화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윤기원, 이동훈, 2017; 이인열, 이지혜, 이수정, 이상민, 2013; 한수연, 정구철, 2013), 이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이인곤, 2015). 이러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참고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은 출소자가 출소 후 급격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내적 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들 수 있다. 출소자들이 재사회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 해도, 출소자들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개인내적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Western, Braga, Davis & Sirois, 2015). Ward, Polaschek과 Beech(2006)는 Pithers-Marques 모델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 재범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범죄자들은 불충분하고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였다. Philips와 Lindsay(2011)는 교도소 수감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연구에서 재소자들은 회피 또는 정서중심의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문제중심적 스트레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재범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아닌 정서적,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정선(2014)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 경우 재범의

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자의 재범여부라는 한 가지의 기준으로 이들을 구분하여 심리변인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만으로 재범집단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범죄는 개인적 차원의 심리내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 및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남상철, 박상석, 2011). 예를 들어, 출소 후 배우자와 함께 사는 출소자는 재범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acKenzie & De Li, 2002), 출소 후 가족들의 강력한 지지체계는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양혜경, 서보람, 2014). 출소자의 가족관계와 이들의 재범과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감기간 동안 향상된 가족관계를 보고한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재범율이 낮았다(Brunton-Smith & McCarthy, 2017). 자녀 또한 출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Travis & Waul, 2003), 출소자와 자녀 사이의 강한 유대감은 이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강한 동기가 되며(Bales & Mears, 2008), 가족의 지지는 출소자의 재범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uebner & Pleggenkuhle, 2015). 한국사회에서 또한 가족이라는 자원은 출소자의 재사회화에서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박선영, 2012). 실제로, 2017년도에 진행된 공단의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출소자 중 재보호율(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출소자 중 재범으로 재수감되고 출소 후 다시 보호대상자의 신분으로 공단의 지원을 받게 되는 출소자의 비율)이 기혼자는 미혼자 또는 이혼자보다 0.40배 낮으며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

상자에 비해 재보호율이 각 0.59배, 0.79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단의 숙식지원 대상자의 결혼상태 중 미혼이 48.4%, 이혼이 32.0%인 반면에,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는 12.3%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4). 주거지원집단과 숙식지원집단은 주거안정성, 소득수준과 동거가족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의 차이가 될 수 있다. 숙식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비해 재보호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공단의 연구결과를 참고했을 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주거지원서비스 집단과 숙식지원서비스 집단의 심리변인 차이를 탐색하는 것은 이들의 재범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단에서 주거지원 및 숙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숙식지원을 받지 않는 출소자일수록 재범확률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이동훈, 김시형, 권은비, 서현정, 2019),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생활 전반에서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질적연구(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2016)에서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안정적으로 가족기능이 작용하고, 직장에서도 높은 근속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심리상태를 보인 반면,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가정불화의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었다. 나아가 해외에서도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자립과 갱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되고 있으며(Gojkovic, Mills & Meek, 2012; Linney et al., 2013; Pleace & Minton, 2009), 재범예방과도 연

결되는 중추적인 보호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Collins, 2011). 주거의 안정성이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연구(Johnstone, Parsell, Jetten, Dingle & Walter, 2016)가 진행되었고, 주거가 안정되지 못한 집단은 안정된 집단에 비해 정신질환의 비율(Folsom et al., 2005)과, 범죄(Baillargeon, Hoge & Penn, 2010)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 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는 기타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에 비해 MMPI-2 내용척도 중 공포(FRS)와 분노(ANG)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이동훈, 양모현, 권은비, 오대연, 2019)를 바탕으로 이들의 범 죄유형이나 수감기간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변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공단의 출소자 대상 보호서비스 유형이라는 긍정적인 변인을 통해 가정 및 주거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지원집단과 상대적으로 가정 및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숙식지원집단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같은 개인 심리변인은 재범에 영향을 미치며,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재범집단 내에서도 주거변인과 같은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 재범집단이 가지는 위험요인 보호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초범집단 내에서도 주거환경이 초범집단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출소자의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심리변인(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집단을 주거지원을 받는 집단과

숙식지원을 받는 집단으로 다시 분류하여 이들의 심리변인(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범과 재범여부에 따라 출소자들의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가?
2.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에서 주거지원과 숙식지원 여부에 따라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센터 용역연구(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전국의 출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7개 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 소재한 24개 공단 지부 및 지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지 표지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도록 솔직하게 답변해 줄 것을 명시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확인 후 설문지에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개인별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봉인하여 우편으로 회수하였

다. 설문을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설문을 회수한 결과 총 82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349명,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471명으로 확인되었다.

재범여부

본 연구에서는 재범을 측정하기 위해 출소자들에게 수감횟수를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문항은 초범, 2회, 3회, 4회, 5-10회, 11회 이상의 6개로 구성되었다. 설문 이후 초범을 '0'으로 2회부터 11회 이상을 모두 '1'으로 코딩하여 이분형 변수로 재범여부 변수를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초범은 345명, 재범은 475명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 및 숙식지원 여부

본 연구에서는 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과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거지원 서비스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 있고 자립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계곤란 무주택 출소자에게 공단이 LH공사 임차주택을 최장 10년간(2년씩 4회 연장, 2년 계약만료 시마다 연장 심사)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숙식지원 서비스는 가족이 없거나, 출소 후 가족과 거주가 어려운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기본 6개월, 이후 6개월 범위 내에서 3회 기간연장 심사) 전국의 공단 내 자율형생활관 시설을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며 자립기반 마련, 직업훈련 및 취업 등의 생계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들은 '0'으로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들은 '1'으로 코딩

하여 이분형 변수로 만들었다.

아동기 학대의상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의상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2009)이 타당화한 아동기 학대의상 척도(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사용하였다. 본 아동기 학대의상 척도는 정서적 학대 5문항, 정서적 방임 5문항, 신체적 학대 5문항, 신체적 방임 5문항, 성적 학대 5문항, 타당도 문항 3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rnstein과 Fink(1998)가 분류한 다섯 가지 아동기 외상 유형 중에서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을 포함하였으나, 성적 학대의 응답률이 너무 낮아 제외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김은희, 이인혜, 2016; 손승희, 2017) 성적 학대 5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구성원들로부터 겪었던 만 18세 이전의 과거의 경험을 묻으며, 척도의 내용은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없었다’ 0점부터 ‘지주 있었다’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의상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79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의 결과는 .91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자아탄력성의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Klohnen(1996)이 개발 및 타당화하고 박현진(199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 수는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문항, 분노조절 2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용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나는 종종 직업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낀다’, ‘나는 종종 별걱 화를 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현진(199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 및 타당화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한국어로 번안한 62문항 중 오수성, 신현균(2008)이 5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20문항으로 축약한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제 중심적 대처 5문항, 사회적 지지의 추구 5문항, 정서 완화적 대처 5문항, 소망적 사고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김정희(1987)가 제안한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를 적극적 대처로, 소망적사고 대처와 정서 완화적 대처를 소극

적 대처의 분류를 사용하여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을 구분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0점부터 ‘아주 많이 사용한다’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수성, 신현균(2008)의 연구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Cronbach's α 는 각각 .83,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4, .85이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PSS 21.0와 Mplus 7.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첫째, 연구 참여자의 초범집단과 재범집단, 주거지원집단과 숙식지원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을 통해 단순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변인(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정규성과 경향성을 확인하고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을 통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잠재변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초범집단과 재범집단, 주거지원을 받는 집단과 숙식지원을 받는 집단의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초범-주거지원집단, 초범-숙식지원집단, 재범-주거지원집단, 재범-숙식지원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다중지표 다중원인(Multiple-indicators Multiple-causes; MIMIC) 모형을 사용하였다. MIMIC 모형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집단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 동시에 다른 더미변수를 추가하거나 혼입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Kline, 2015).

결 과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연구 대상자들을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에서 주거지원과 숙식지원 여부에 따라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수감기간, 수감횟수, 최초수감나이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연구 참여자 820명을 초범-주거지원, 초범-숙식지원, 재범-주거지원, 재범-숙식지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초범-주거지원’은 211명, ‘초범-숙식지원’은 134명, ‘재범-주거지원’은 138명, ‘재범-숙식지원’은 337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746명(91%) ‘여성’이 70명(9%), 연령은 ‘2-30대’가 208명(25%), ‘4-50대’가 539명(65%), ‘60세 이상’이 79명(10%)이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하’가 327명(40%), ‘고등학교 졸업’이 366명(45%), ‘대학교 졸업’이 112명

표 1. 인구사회학적 정보

변수		초범- 주거지원 (n = 211)	초범- 숙식지원 (n = 134)	재범- 주거지원 (n = 138)	재범- 숙식지원 (n = 337)	총 합 (N = 820)
성별	남성	157(74%)	129(96%)	130(94.2%)	330(98%)	746(91%)
	여성	54(26%)	5(4%)	8(5.8%)	3(1%)	70(9%)
연령	2-30대	25(12%)	36(34%)	23(17%)	108(32%)	208(25%)
	4-50대	165(78%)	65(49%)	98(71%)	201(60%)	539(65%)
	60세 이상	21(10%)	16(12%)	17(12%)	25(8%)	79(10%)
학력	중학교 졸업이하	68(32%)	35(26%)	46(33%)	178(53%)	327(40%)
	고등학교 졸업	92(44%)	64(47%)	72(52%)	138(41%)	366(45%)
	대학교 졸업	48(23%)	27(20%)	18(13%)	19(6%)	112(14%)
	대학원 졸업	3(1%)	4(3%)	2(1%)	1(0%)	10(1%)
직업	정규직	54(26%)	15(11%)	37(27%)	39(12%)	145(18%)
	비정규직	83(39%)	58(43%)	51(37%)	189(56%)	381(47%)
	자영업	59(28%)	0	35(25%)	0	94(12%)
	무직	15(7%)	53(40%)	13(9%)	103(31%)	185(23%)
수감기간	1년 미만	71(34%)	60(45%)	56(17%)	56(17%)	220(27%)
	1~2년	51(24%)	36(27%)	63(19%)	63(19%)	183(22%)
	2~5년	46(22%)	20(15%)	101(30%)	101(30%)	199(24%)
	5~10년	20(10%)	7(5%)	69(21%)	69(21%)	113(14%)
	10년 이상	21(10%)	9(7%)	46(14%)	46(14%)	97(12%)
수감횟수	1회	211(100%)	134(100%)	0	0	345(42%)
	2회	0	0	61(44%)	99(29%)	160(20%)
	3회	0	0	39(28%)	94(28%)	133(16%)
	4회	0	0	15(11%)	53(16%)	68(8%)
	5~10회	0	0	23(17%)	72(21%)	95(12%)
	11회 이상	0	0	0	19(6%)	19(2%)
최초 수감나이	10~19세	1(1%)	13(10%)	2(1%)	81(24%)	97(12%)
	20~29세	19(9%)	21(16%)	32(23%)	132(39%)	204(25%)
	30~39세	62(29%)	29(22%)	56(41%)	68(20%)	215(26%)
	40~49세	85(40%)	37(28%)	21(15%)	29(9%)	172(21%)
	50~59세	40(19%)	20(15%)	3(2%)	25(7%)	88(11%)
	60세 이상	4(2%)	11(8%)	0	2(1%)	17(2%)

(14%) ‘대학원 졸업’이 10명(1%)이었으며, 직업은 ‘정규직’이 145명(18%), ‘비정규직’이 381명(47%), ‘자영업’이 94명(12%), ‘무직’이 185명(23%)으로 나타났다. 수감기간은 ‘1년 미만’이 220명(27%), ‘1~2년’이 183명(22%), ‘2~5년’이 199명(24%), ‘5~10년’이 113명(14%), ‘10년 이상’이 97명(12%)이었다. 수감횟수는 ‘1회’ 345명(42%), ‘2회’ 160명(20%), ‘3회’ 133명(16%), ‘4회’ 68명(8%), ‘5~10회’ 95명(12%), ‘11회 이상’이 19명(2%)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연구변인(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연구대상자와 초범과 재범여부, 주거지원과 숙식지원 여부에 따른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초범과 재범여부, 주거지원과 숙식지원 여부에 따른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2, 3에 제시하였다. Kline(2015)이 제시한 왜

표 2. 초범-주거지원, 초범-숙식지원, 재범-주거지원, 재범-숙식지원 집단에 따른 변인 간 기술통계

		초범-주거지원(초범-숙식지원)				재범-주거지원(재범-숙식지원)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아동기 학대외상	정서적 학대	2.36 (2.90)	2.875 (2.991)	1.418 (1.343)	1.448 (1.758)	3.08 (4.71)	3.197 (3.522)	1.073 (0.437)	0.346 (-0.598)
	신체적 학대	1.78 (1.90)	2.983 (3.131)	2.408 (1.835)	6.073 (2.406)	2.71 (4.44)	4.013 (4.390)	1.814 (0.857)	2.430 (-0.243)
	정서적 방임	4.52 (6.17)	4.349 (4.751)	0.781 (0.256)	-0.381 (-1.072)	4.88 (7.53)	4.461 (4.650)	0.675 (-0.041)	-0.546 (-1.014)
	신체적 방임	3.20 (3.30)	2.647 (3.056)	0.727 (1.036)	-0.348 (0.925)	3.70 (5.08)	3.068 (3.359)	0.973 (0.463)	0.872 (-0.231)
자아탄력성	자신감	32.88 (31.08)	5.888 (5.539)	-0.311 (0.366)	0.092 (-0.287)	31.38 (28.09)	5.675 (5.349)	-0.260 (-0.188)	0.079 (0.418)
	대인관계 효율성	28.62 (26.43)	5.956 (5.921)	-0.411 (0.422)	0.477 (-0.267)	28.09 (24.92)	4.906 (5.573)	-0.186 (-0.097)	-0.366 (0.510)
	낙관적 태도	36.00 (34.10)	6.227 (5.917)	-0.309 (0.280)	-0.030 (-0.148)	34.86 (31.58)	5.697 (5.118)	-0.123 (0.089)	0.400 (0.937)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 중심적 대처	10.35 (9.13)	3.101 (3.137)	-0.571 (-0.307)	0.251 (0.119)	10.44 (8.75)	2.546 (3.076)	-0.358 (-0.170)	0.722 (0.093)
	사회적지지 추구	7.29 (7.21)	2.631 (2.673)	-0.086 (0.010)	0.642 (0.513)	7.46 (7.07)	2.515 (2.610)	0.281 (-0.168)	0.600 (0.373)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서 완화적 대처	9.56 (8.52)	2.958 (2.630)	-0.238 (-0.194)	-0.014 (0.803)	9.80 (8.35)	2.561 (2.897)	-0.083 (-0.217)	-0.521 (0.075)
	소망적 사고 대처	9.04 (8.12)	3.505 (3.399)	-0.399 (-0.176)	-0.208 (-0.551)	9.36 (7.97)	3.047 (3.611)	-0.073 (-0.184)	-0.101 (-0.330)

표 3. 초범-주거지원, 초범-숙식지원, 재범-주거지원, 재범-숙식지원 집단에 따른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	-	.590** (.702**)	.428** (.189**)	.498** (.547**)	-.256** (-.443**)	-.178* (-.348**)	-.302** (-.392**)	-.195* (-.099)	.090 (.123**)	.010 (.118*)	-.121 (-.015)
2	.590** (.727**)	-	.262** (.226**)	.471** (.592**)	-.221** (-.345**)	-.241** (-.329**)	-.208* (-.354**)	.042 (-.086)	.187* (.123*)	.177* (.056)	-.011 (-.048)
3	.428** (.231**)	.262** (.327**)	-	.490** (.381**)	-.245** (-.185**)	-.162 (-.127*)	-.265** (-.281**)	-.306** (-.235**)	-.053 (-.013)	-.229** (-.087)	-.195* (-.267**)
4	.498** (.511**)	.471** (.578**)	.490** (.540**)	-	-.310** (-.292**)	-.213* (-.275**)	-.238** (-.349**)	-.170* (-.216**)	-.033 (.084)	-.086 (-.058)	-.068 (-.162**)
5	-.256** (-.391**)	-.221** (-.273**)	-.245** (-.244**)	-.310** (-.347**)	-	.729 (.781**)	.750** (.756**)	.451** (.274**)	.012 (-.086)	-.027 (-.024)	.453** (.277**)
6	-.178* (-.298**)	-.241** (-.180**)	-.162 (-.030)	-.213* (-.128)	.729** (.663**)	-	.521** (.641**)	.251** (.177**)	-.112 (-.081)	-.072 (-.014)	.378** (.196**)
7	-.302** (-.380**)	-.208* (-.346**)	-.265** (-.338**)	-.238** (-.419**)	.750** (.745**)	.521** (.472**)	-	.389** (.357**)	-.027 (-.041)	-.118 (.005)	.415** (.277**)
8	-.195* (-.139)	.042 (-.102)	-.306** (-.471**)	-.170* (-.215*)	.451** (.403**)	.251** (.186*)	.389** (.268**)	-	.290** (.340**)	.400** (.483**)	.525** (.612**)
9	.090 (.036)	.187* (.057)	-.053 (-.144)	-.033 (.164)	.012 (-.034)	-.112 (-.036)	-.027 (.004)	.290** (.231**)	-	.501** (.514**)	.154 (.287**)
10	-.010 (.142)	.177* (.161)	-.229** (-.266**)	-.086 (.019)	-.027 (.098)	-.072 (-.005)	-.118 (.078)	.400** (.527**)	.501** (.370**)	-	.192* (.402**)
11	-.121 (-.060)	-.011 (-.063)	-.195* (-.376**)	-.068 (-.161)	.453** (.290**)	.378** (.190*)	.415** (.246**)	.525** (.611**)	.154 (.205**)	.192* (.350**)	-

* $p < .05$ ** $p < .01$.

주. 대각선 위의 상관계수들은 재범-주거지원(재범-숙식지원), 대각선 아래의 상관계수들은 초범-주거지원(초범-숙식지원)

주. 1. 정서적학대, 2. 신체적학대, 3. 정서적방임, 4. 신체적방임, 5. 자신감, 6. 대인관계 효율성, 7. 낙관적 태도, 8. 문제 중심적 대처, 9. 사회적 지지추구, 10. 정서완화적 대처, 11. 소망적 사고 대처

도의 절대값이 3 점도의 경우 7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변인들의 정규성 분포에는 문제가 없어 다변량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5, 그림 1과 같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χ^2 값이 289.863($df = 38$, $p = .000$), CFI는 .940이며, RMSEA는 .089(90% 신뢰구간=.080-.099), SRMR은 .058로 나타나, 설정한 측정모형과 실제 자료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적재량 또한 모든 측정변인이 Kline(2015)이 제시한 .40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측정모형이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의 전체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정하영 등 /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초범/재범여부와 주거/숙식 지원여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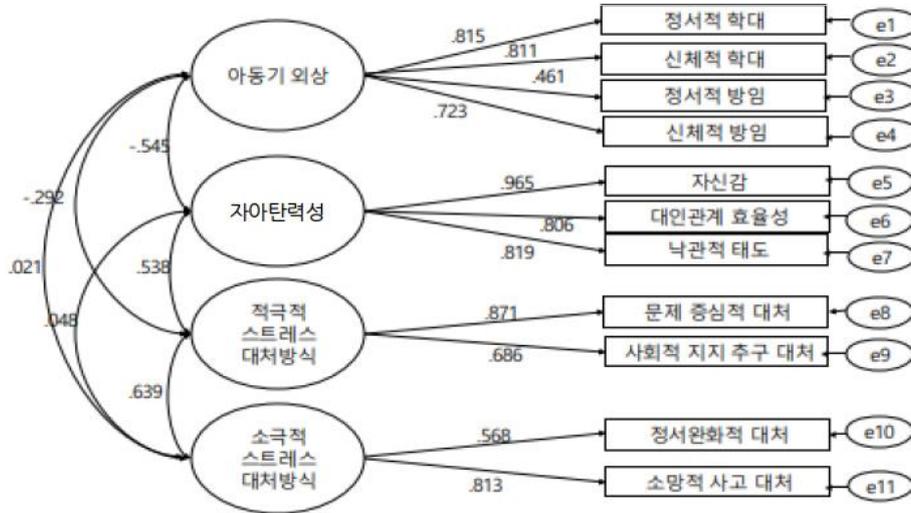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 측정모형 분석 결과

	$B(\beta)$	S.E.	t
아동기 학대 외상			
정서적 학대	.815(1)		
신체적 학대	.811(1.175) ^{***}	0.049	23.797
정서적 방임	.461(0.793) ^{***}	0.066	12.078
신체적 방임	.723(0.841) ^{***}	0.043	19.668
자아탄력성			
자신감	.965(1)		
대인관계 효율성	.806(0.825) ^{***}	0.025	32.850
낙관적 태도	.819(0.852) ^{***}	0.026	32.624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 중심적 대처	.871(1)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686(0.889) ^{***}	0.051	17.533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서완화적 대처	.568(1)		
소망적 사고 대처	.813(1.581) ^{***}	0.145	10.884

^{***} $p < .001$

재범여부에 따른 MIMIC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재범여부에 따른 연구변인(아동기 학대 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χ^2 값은 291.384($df=45$, $p=.000$), CFI는 .940이었으며, RMSEA는 .082(90% 신뢰구간=.073-.091), SRMR은 .059이었다. 이러한 적합도의 수치는 Kline(2015)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인하였을 때 CFI가 .90이상, RMSEA가 .10이하, SRMR이 .08이하이므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이다.

재범여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 MIMIC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차이는 아동기 학대 외상($\beta=.314$, $p<.001$), 자아탄력성($\beta=-.265$, $p<.001$),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05$, $p<.01$)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071$,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학대외상은 초범집단에 비해 재범집단이 더 높았고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초범집단에 비해 재범집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여부와 주거 및 숙식지원에 따른 MIMIC 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초범집단에서 주거지원과 숙식지원 집단의 차이, 재범집단에서 주거지원과 숙식지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범-주거지원집단을 0, 초범-숙식지원집단을 1로 코딩한 더미변수와 재범-주거지원집단을 0, 재범-숙식지원집단을 1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만들어 MIMIC 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χ^2 값은 187.008($df=52$, $p=.000$), CFI는 .935

표 5. 재범여부에 따른 MIMIC 모형의 적합도

	χ^2	df	p	CFI	RMSEA	SRMR
재범여부	291.384	45	.000	.940	.082(.073-.091)	.059

표 6. 재범여부에 따른 MIMIC 모형의 경로계수

기준	비교	경로	$\beta(B)$	SE	t
초범집단 ^a	재범집단	아동기 학대외상	.314(1.745) ^{***}	0.206	8.484
		자아탄력성	-.265(-3.074) ^{***}	0.400	-7.687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105(-0.573) ^{**}	0.212	-2.704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071(-0.214)	0.124	-1.719

^{**} $p<.01$. ^{***} $p<.001$.

주. ^a = 초범집단은 0, 재범집단은 1로 코딩

표 7. 4가지 사건유형 분류에 따른 MIMIC모형 적합도

χ^2	<i>df</i>	<i>p</i>	CFI	RMSEA	SRMR
187.008	52	.000	.935	.080(.067-.092)	.062

었으며, RMSEA는 .080(90% 신뢰구간=.067-.092), SRMR은 .062로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MIMIC 모형의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초범-주거지원집단과 초범-숙식지원집단의 차이는 모든 변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동기 학대외상은 초범-주거지원집단에 비해 초범-숙식지원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95, p<.001$). 반면, 자아탄력성($\beta=-.236, p<.001$),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215, p<.001$),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39, p<.05$)은 초범-주거지원집단에 비해 초범-숙식지원집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범-주거지원집단과 재범-숙식지원집단의 차이는 아동기 학대외상($\beta=.230, p<.001$), 자아탄력성($\beta=-.258, p<.001$),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152,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beta=-.03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학대외상은 재범-주거지원집단에 비해 재범-숙식지원집단이 더 높았고 자아탄력성과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재범-주거지원집단에 비해 재범-숙식지원집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4가지 집단 분류에 따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기준	비교	경로	$\beta(B)$	S.E	<i>t</i>
초범- 주거지원집단 ^a	초범- 숙식지원집단	아동기 학대외상	.195(1.009) ^{***}	0.279	3.619
		자아탄력성	-.236(-2.663) ^{***}	0.549	-4.850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215(-1.191) ^{***}	0.299	-3.989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139(-0.641) [*]	0.281	-2.285
재범- 주거지원집단 ^b	재범- 숙식지원집단	아동기 학대외상	.230(0.168) ^{***}	0.040	4.212
		자아탄력성	-.258(-0.411) ^{***}	0.077	-5.298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152(-0.119) ^{**}	0.042	-2.841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030(-0.019)	0.041	-0.468

* $p<.05$ ** $p<.01$ *** $p<.001$.

주. ^a = 초범-주거지원집단은 0, 초범-숙식지원집단은 1로 코딩.

주. ^b = 재범-주거지원집단은 0, 재범-숙식지원집단은 1로 코딩

논 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및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초범 및 재범여부에 따른 심리변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대상자를 초범 및 재범여부에 따라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으로 나누고, 지원받고 있는 보호사업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주거지원집단과 숙식지원집단으로 분류하여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에서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두 집단 간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집단은 초범집단에 비해 아동기 학대외상이 더 높고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범집단이 초범집단에 비해 아동기 학대외상이 높다는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Bowen et al., 2018; Malvaso et al., 2018; Moore & Tatam, 2016)을 지지한다. 또한, 아동기 외상 경험이 있는 출소자는 그렇지 않은 출소자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Baglivio et al., 2016; Sergentanis, 2014). 그러나 아동기 학대경험 중 신체방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방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재범집단이 초범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자아탄력성에 관하여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자아탄력성은 출소자 재범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써 강조되어 왔지만(Markson, et al., 2015; Viljoen, et al., 2011), 재범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Fougere & Daffern, 2015),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보고되고 있다(Fougere & Daffern, 2012). 한편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출소자 교정 및 재사회화에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는 편이다(윤기원, 이동훈, 2017; 이인곤, 2015; 이인열 외, 2013; 한수연, 정구철, 2013) 따라서 자아탄력성과 재범여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재범집단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두 초범집단보다 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범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염정선, 2014)와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Pithers-Marques 모델(Ward, et al., 2006)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는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20명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Phillips & Lindsay, 2011). 이러한 결과는 재범집단은 초범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처하려하지 않고 상황을 외면하거나 피함으로써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이들의 재범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본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로

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더불어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한 초범집단이 재범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초범집단은 재범집단에 비해 출소 후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자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대처를 둘 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심리변인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재범을 저지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출소자의 취업경험을 통한 사회적응 또는 출소자 대상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정도가 수행된 연구로(민원홍, 원일, 2017; 양난미, 이견화, 송미경, 이은경, 2016; 오봉욱, 2017; 이인곤, 2015),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국내 연구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을 것이다.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출소자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소와 이들의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고, 출소 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TIC(Trauma-Informed Care)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기에 학대외상을 경험한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Levenson, Willis & Prescott, 2016), 출소자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도모하는

STV(Silence the Violence) 프로그램을 운영하여(Mapham & Hefferon, 2012) 출소자에 대한 심리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보다 출소자의 심리특성을 고려한 재범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범집단과 재범집단 내 주거지원과 숙식지원 여부에 따라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초범집단에서는 초범-숙식지원집단이 초범-주거지원집단과 비교하여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숙식지원집단이 초범-주거지원집단보다 아동기 학대외상이 더 높고 자아탄력성, 적극적,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범-숙식지원집단과 재범-주거지원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숙식지원집단은 재범-주거지원집단보다 아동기 학대외상이 더 높고 자아탄력성,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거지원을 받는 집단이 숙식지원을 받는 집단보다 재범여부에 상관없이 본 연구의 심리변인에서 더욱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안정적으로 가족기능이 작용하고, 직장에서도 높은 근속율을 보이는 등 안정된 심리상태를 지닌 반면, 숙식지원을 받는 출소자는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된다는 질적 연구(이동훈 외, 2016)와 맥을 같이 한다.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들의 집단과 숙식을 받는 출소자들의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거 불안정성을 가진 출소자일지라도 동거가족의 유무 및 주거환경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해외에서 또한 출소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자립과 갱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Gojkovic, et al., 2012; Linney, & O'Leary, C., 2013; Pleace & Minton, 2009), 더 나아가 재범예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보호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Collins, 2011). 해외에서도 출소자의 재범예방에 있어서 주거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으며(Hooks, 2013), Bowpitt(2015)의 연구에서 주거의 안정이 부채할수록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이 심리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중단연구 결과는(Johnstone, et al., 2016), 재범여부에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안정성(숙식지원을 받는 대상자보다 낮은 아동기 학대외상, 높은 자아탄력성, 높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주거지원서비스는 출소자에게 있어서 출소 후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의 주거지원서비스가 최장 10년까지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출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내 출소자의 사회적응 및 재범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어 응답자의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더욱이,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의 경우 자기인식의 왜곡이나, 타인이나 사회인식의 왜곡 또는 병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출소자의 집단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 심리변인을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만으로는 대상자의 심리적 차이를 규명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심리변인들을 추가하여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주거 환경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 및 숙식지원을 받는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동거가족 유무 및 경제적 수준이라는 변인을 사용하여 각각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범여부라는 변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출소 후 공단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출소자가 재범으로 인하여 다시 수감된 후 출소하여 공단의 서비스를 다시 받은 경우만을 재범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재수감된 이후에 출소 후 공단의 서비스를 다시 받지 않은 출소자의 경우에는 현재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범여부라는 변인이 재범집단 전체를 대표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출소자들의 반복적인 재범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초범집단과 재범집단과의 비교 외에도, 재범집단 내에서 반복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한 분석, 즉 재범 횟수에 따른 개인 심리변인 및 환경적 변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범집단과 재범집단의 차이를 규명하고자하는 시도는 출소자가 출소 후 사회적응 및 재범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더 나아가 출소

자가 사회에서 겪게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심도있게 다뤄줄 수 있는 보호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운, 이동훈 (2019).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별 다집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749-777.
- 경찰청 (2017). 경찰청 통계DB조회,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4201&dbUser=NSI_IN_132 에서 검색
- 김은희, 이인혜 (2016). 아동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특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03-1022.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 (2013).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남상철, 박상석 (2011). 수형자의 재범요인 연구. *한국교정학회*, 50, 115-139.
- 민원홍, 원 일 (2017).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정복지학회*, 47, 1-19.
- 박선영 (2012). 수형자 사회복지관을 지원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생발전 협동연구총서*, 12-01-36.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6). 법무연감. 서울: 법무부.
- 손승희 (2017). 아동기의상과 관계증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 양난미, 이진화, 송미경, 이은경 (2016). 출소자 취업지원관의 경험에 대한 연구: 취업지원 업무, 출소자의 취업과 취업유지. *한국상담학회*, 17(3), 477-502.
- 양혜경, 서보람 (2014).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63(5), 115-144.
- 염정선 (2014). 출소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재범의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 오봉욱 (2017).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서비스 실천의 개선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48, 77-102.
- 오수성, 신현균 (2008). 5· 18 피해자들의 생활 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595-611.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윤기원, 이동훈 (2017).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65-785.
-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2016).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

- 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 문제, 22(4), 595-622.
- 이동훈, 김시형, 권은비, 서현정 (2019). 출소자 대상의 보호사업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재범여부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503-525.
- 이동훈, 신지영, 오혜영, 박성현 (2015). 출소자의 가정복원 과정에 관한 교정전문가의 인식. 한국가족복지학, 20(3), 499-530.
- 이동훈, 양모현, 권은비, 오대연 (2019). 범죄유형 및 수감기간에 따른 남성 출소자의 MMPI-2 반응 특성 비교. 재활심리연구, 26(2), 19-35.
- 이인곤 (2015). 출소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법무 (보호) 복지사업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57, 137-160.
- 이인열, 이지혜, 이수정, 이상민 (2013).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4), 883-90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4). 2014년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방안 연구. <http://koreha.or.kr/wp-content/uploads/2015/05/%EC%B6%9C%EC%86%8C%EC%9E%90-%EA%B0%80%EC%A0%95%EB%B3%B5%EC%9B%90%EC%9C%84%ED%95%9C-%EC%8B%A4%ED%83%9C%EC%A1%B0%EC%82%AC.pdf> 에서 검색.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2017년 공단 심리상담 및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https://koreha.or.kr/board/view.do> 에서 검색.
- 한수연, 정구철 (2013). 남성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763-781.
- Baglivio, M. T., Wolff, K. T., Piquero, A. R., Bilchik, S., Jackowski, K., Greenwald, M. A., & Epps, N. (2016). Maltreatment, child welfare, and recidivism in a sample of deep-end crossover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4), 625-654.
- Baillargeon, J., Hoge, S. K., & Penn, J. V. (2010). Addressing the challenge of community reentry among released inmate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6(3-4), 361-375.
- Bales, W. D., & Mears, D. P. (2008). Inmate social ties and the transition to society: Does visitation reduce recidivism?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3), 287-321.
- Benda, B. B. (2001). Factors that discriminate between recidivists, parole violators, and non recidivists in a 3-year follow-up of boot camp gradu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5(6), 711-729.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Harcourt Brace & Company.
- Bowen, K., Jarrett, M., Stahl, D., Forrester, A., & Valmaggia, L.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adverse life event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years and subsequent adult psychopathology in 49,163 adult prisoners: A systematic review.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1, 74-92.
- Bowpitt, G. (2015). New keys for old doors: breaking the vicious circle connecting homelessness and re-offending. *Social Policy Review 27: Analysis and Debate in Social Policy*, 2015, 27, 113.

- Brunton-Smith, I., & McCarthy, D. J. (2017). The effects of prisoner attachment to family on re-entry outcomes: A longitudinal assessment.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7(2), 463-482.
- Collins, J. (2011). Breaking the cycle: The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s justice green paper for housing for former offenders. *Housing, Care and Support*, 14(1), 15-20.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
- Folsom, D. P., Hawthorne, W., Lindamer, L., Gilmer, T., Bailey, A., Golshan, S., & Jeste, D. V. (2005). Prevalence and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nd 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among 10,340 patien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in a large public mental health system.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2), 370-376.
- Fougere, A., Daffern, M., & Thomas, S. (2012). Toward an empirical conceptualisation of resilience in young adult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3(5-6), 706-721.
- Fougere, A., Daffern, M., & Thomas, S. (2015). Does resilience predict recidivism in young offenders?.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22(2), 198-212.
- Gojkovic, D., Mills, A., & Meek, R. (2012). Accommodation for ex-offenders: Third sector housing advice and provision, Southampton: Third Sector Research Centre, (Third Sector Research Centre Working and Briefing Paper Series, 77), Retrieved from <http://hdl.handle.net/10149/245651>
- Hooks, G. (2013). Social Impact Bonds: A Promising Tool for the Future of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Community Investments*, 25(01), 23-24.
- Huebner, B. M., & Pleggenkuhle, B. (2015). Residential location, household composition, and recidivism: An analysis by gender. *Justice Quarterly*, 32(5), 818-844.
- Johnstone, M., Parsell, C., Jetten, J., Dingle, G., & Walter, Z. (2016). Breaking the cycle of homelessness: Housing stabilit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long-term well-being. *Housing Studies*, 31(4), 410-426.
- Jo Linney., Chris O'Leary., Mills, A., Gojkovic, D., Meek, R., & Mullins, D. (2013). Housing ex-prisoners: The role of the third sector. *Safer Communities*, 12(1), 38-49.
- Kerig, P. K., & Becker, S. P. (2015). *12 Early Abuse and Neglect as Risk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The Development of Criminal and Antisocial Behavior* (pp. 181-199). Springer, Cham.
- Kim, E. Y., Park, J., & Kim, B. (2016). Type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the risk of criminal recidivism in adult probationers: A cross-sectional study. *BMC Psychiatry*, 16(1), 294.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lohn, D.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Levenson, J. S., Willis, G. M., & Prescott, D. S.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 the lives of male sex offenders: Implications for trauma-informed care. *Sexual Abuse*, 28(4), 340-359.
- Linney, J., & O'Leary, C. (2013). Offenders, welfare reforms and housing. *Safer Communities*, 15(1), 24-26.
- MacKenzie, D. L., & Li, S. D. (2002). The impact of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s on the criminal activities of probationer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3), 243-276.
- Malvaso, C. G., Delfabbro, P., & Day, A. (2018). The maltreatment-offending associati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methodological features of prospective and longitudinal studies. *Trauma, Violence, & Abuse*, 19(1), 20-34.
- Mapham, A., & Hefferon, K. (2012). "I Used to Be an Offender-Now I'm a Defender": Positive Psychology Approaches in the Facilitation of Posttraumatic Growth in Offender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1(6), 389-413.
- Markson, L., Lösel, F., Souza, K., & Lanskey, C. (2015). Male prisoners' family relationships and resilience in resettlement.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5(4), 423-441.
- Maschi, T., MacMillan, T., Morgen, K., Gibson, S., & Stimmel, M. (2010). Trauma, world assumptions, and coping resources among youthful offenders: Social work, mental health, and criminal justice implication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7(6), 377-393.
- Moore, M. D., & Tatman, A. W.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offender risk to re-offend in the United States: A quantitative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11(2), 148.
- Phillips, L. A., & Lindsay, M. (2011). Prison to society: A mixed methods analysis of coping with ree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1), 136-154.
- Pleace, N., & Minton, J. (2009). Delivering better housing and employment outcomes for offenders on probation, Project Report,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Retrieved from <http://eprints.gla.ac.uk/90426/>
- Sergentanis, T. N., Sakelliadis, E. I., Vlachodimitropoulos, D., Goutas, N., Sergentanis, I. N., Spiliopoulou, C. A., & Papadodima, S. A. (2014). Does history of childhood maltreatment make a difference in prison? A hierarchical approach on early family events and personality traits. *Psychiatry Research*, 220(3), 1064-1070.
- Teague, R., Mazerolle, P., Legosz, M., & Sanderson, J. (2008). Linking childhood exposure to physical abuse and adult offending: Examining mediating factors and gendered relationships. *Justice Quarterly*, 25(2), 313-348.
- Topitzes, J., Mersky, J. P., & Reynolds, A. J. (2011). Child maltreatment and offending behavior: Gender-specific effects and pathways.

-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5), 492-510.
- Travis, J., & Waul, M. (2003). *Prisoners once removed: The impact of incarceration and reentry on children,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Urban Institute.
- Viljoen, S., Nicholls, T., Greaves, C., de Ruiter, C., & Brink, J. (2011). Resilience and successful community reintegration among female forensic psychiatric patien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9(5), 752-770.
- Ward, T., Polaschek, D., & Beech, A. R. (2006). *Theories of sexual offending*. John Wiley & Sons.
- Western, B., Braga, A. A., Davis, J., & Sirois, C. (2015). Stress and hardship after pris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0(5), 1512-1547.

원 고 접 수 일 : 2018. 11. 26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1. 29

게 재 결 정 일 : 2019. 02. 13

The Difference in Ex-Offenders' Violent Trauma in Childhood, Self-Resilience, and Active/Passive Coping Strategies by Recidivism and Housing Service Type

Ha-Young Jung

Si-Hyeong Kim

Wook-Hyun Kwon

Dong-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 Student

Sungkyunkwan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ex-offenders' psychological symptoms (violent trauma in childhood, resilience, active coping strategy, and passive coping strategy) by recidivism and housing service type (housing or accommodation service). A multiple indicator/multiple cause (MIMIC) approach was applied to examine difference among these psychological symptoms in a sample of 820 ex-offenders who had been receiving services from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Results showed that the recidivism group had higher scores in violent trauma in childhood, but lower scores in resilience and in active coping strategies. In addition, the recidivism-accommodation service group had higher violent trauma in childhood and lower resilience, active coping strategy, and passive coping strategy than the recidivism-housing service group. The non-recidivism-accommodation service group also had higher violent trauma in childhood and lower resilience and active coping strategies than the non-recidivism-housing service group.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Recidivism, Ex-Offenders, Violent Trauma in Childhood, Self-Resilience, Coping Strategies, Housing Service, Accommodation Service*